〈제13회 화재 및 자연재해 예방 체험수기 현상공모 대상 수상작〉

아주 특별한 수업

글 **신현주** 서울

"선생님~ 큰일 났어요. 과학책에 불이 붙었어요~~~"

웅성거리는 목소리와 종이 타는 냄새에 나는 곧장 아이들에게 달려갔고, 일단 옆에 있던 물걸레로 불부터 껐다. 아이들이 알코올램프의 불을 옮기다가 그만 교과서에 불이 붙은 모양이었다. 다행히 큰 불이 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중 하나가 바로 과학 실험 시간이다. 하지만 교사에게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부담이 큰 시간이다. 왜냐하면 오늘처럼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6학년의 '연소와 소화' 라는 단원에는 불을 사용해야 하는 실험이 많았기에 나는 화재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보니,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학 실험보다 더 중요한 건 아이들의 안전이 아닐까? 오늘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곧바로 나는 초등학생을 위한 『불조심 길라잡이』와 같은 자료들을 찾아가며, 새로운 수업 준비를 시작했다. 바로 과학 실험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수업' 이었다. 이것은 아이들이 5학년 때 배웠던 전기와 안전 단원과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가스를 사용해서 실습해야 하는 실과 요리 수업과도 연관이 있었다. 이처럼 아이들에게 '불' 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업의 소재이기도 하는 한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충분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불을 가까이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다

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는 화재 예방을 위한 행사는 '불조심 글짓기, 표어 대회' 와 같은 일회적인 경우가 많았다.

나는 이번 수업을 계기로 아이들이 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마음으로 느끼고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싶었다. 그렇다면 '왜 화재를 예방해야 하는 것일까?' 아이들이 그 이유를 스스로 찾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다.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첫 수업 시간. 나는 아이들에게 작은 종이 상자를 나눠 주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적어 넣도록 했다. 어떤 아이들은 제일 먼저 자신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몇몇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이름, 자신이 아끼는 장난감, 만화책, 게임팩, 휴대폰 등을 적어 내려갔다. 나 또한 아이들과 똑같이 내게 소중한 것들을 적어 보았다. 잠시 후 각자의 종이 상자에는 자신의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종이 상자를 가져와 모래가 깔린 받침대에 올려놓은 후, 조심스럽게 성냥불을 붙였다.

"지금 선생님의 종이 상자가 타는 모습이 보이나요?

여러분의 상자를 직접 태우지는 않았지만, 나의 소중한 종이 상자가 타고 있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 보세요."

내 말이 끝나자, 방금 전까지 친구들과 장난을 치던 아이들이 순간 진지해졌다. 종이 상자는 금세 타들어갔고 한줌의 재가 되었다. 이 모습을 본 우리는 서로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히 글자가 적힌 종이 상자였는데 정말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가끔 동네 친구들이랑 재미삼아 불장난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작은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소중한 상자가 탄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어요."

어떤 아이는 속상해서 훌쩍거리기도 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화재를 미리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끼게 싶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험실뿐 아니라 불이 있는 생활공간 곳곳에서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물건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 끝나고, 다음은 구체적인 화재 예방 방법에 대해 논의할 차례였다. 아이들은 실험실에서 지켜야 하는 화재 예방 수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학급 재량 시간을 활용해서 만들기로 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화재 예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오는 과제를 내주었다. 이런 숙제를 통해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 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렇게 긴 토론과 준비 끝에 드디어 우리 반의 '실험실 화재 예방 수칙' 이 완성되었다.

소중한 우리를 위한 '실험실 화재 예방 수칙'

1. 실험실의 모든 실험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하고, 무리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
2. 실험 전에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다.
3. 실험 전에 실험 순서 및 안전 주의 사항을 반드시 필독한다.
4. 실험 중간에 친구들과 장난치거나 잡담을 하지 않는다.
5. 특히 가열장치를 사용 중에는 실험대를 떠나지 않는다.

6. 눈금이 새겨진 유리 기구(눈금 실린더, 뷰렛, 피펫 등)는 절대로 불로 가열하지 않는다.
7.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나 전기배선을 만지지 않는다.
8. 알코올램프는 옆에서 뚜껑을 살짝 덮어서 끄고 불을 옮길 때에는 성냥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불을 확실히 끈 다음 모래 위에 버린다.
9. 시약이나 위험물질에 직접 손대지 않고 선생님에게 적당량을 받아서 사용한다.
10. 실험 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선생님께 바로 알린다.

우리는 이것을 학급 게시판에 붙여 놓고 실험실에 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 큰 소리로 읽었다. 또 수칙을 바탕으로 '화재 예방 실천표'를 만들어 과학 실험이 시작되기 전과 중간, 실험 후에 아이들이 O, X를 표시하면서 스스로 실천 상황을 점검하게 했다.

아이들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불을 조심히 다루는 법을 배웠다. 이 수업 때문일까? 다행히 아이들과 함께 했던 1년 동안 실험실에서도, 교실에서도, 또 아이들의 집에서도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처럼 '화재 예방'이 아이들에게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아 먼 훗날 내가 없을 때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실험실의 작은 사고에서 시작되었던 우리들의 수업은 그렇게 막을 내렸고, 그 때의 아이들은 벌써 졸업을 했다. 교사로서 영어 단어를 가르치고, 수학 공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처럼 아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것 또한 때론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처럼 과학실 벽면에 붙여진 빛바랜 수칙이 바람에 펄럭일 때면 나는 문득 아이들이 그리워진다.

"애들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지?"